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건강증진생활양식 비교

Comparison of Health Promotion Lifestyle between Taxi Driver and Bus Driver

(지도교수: 이 세 훈)

손 속 경¹⁾

목적 : 운수업 근로자는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불규칙한 식사, 야간 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등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물리·환경적 요인과 고령화, 음주 및 흡연, 운동부족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다른 직종보다 높으므로 운수업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를 구분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비교함으로써 운수업 근로자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를 257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는 Chi-square 검증을,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정도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도구 사용하였고,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결과 : 본연구의 주요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서 평균연령에서 택시 기사는 52.34세, 버스기사 46.0세로 택시기사가 6세 이상 나이가 많았고,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다",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건강을 "항상 걱정 한다"고 응답한 경우, 택시기사보다 버스기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변수들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14.5% 설명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할수록, 피로를 느끼지 않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므로 근무환경 개선으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거나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고, 사내 체력 단련실 제공,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수업 근로자의 주기적 보건교육 및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의 관심도를 높여 운수업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업장에 건강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회시스템의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산업간호협회 11년도 연구지원사업기금으로 수행되었음.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과